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3. 4. 3

서 정훈 연구위원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3/27~3/31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독일 도이체뱅크 부실 우려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속 상승 출발 후, SVB 인수 소식에도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흐름 연동되며 상승 흐름 지속. 이어 미 SVB 인수 소식에 따른 은행 위기 진정 분위기 속 1,294원대 까지 하락 했으나, 국내 무역적자 소식과 결제수요 우려로 하단이 제한된 양상
- 중반 들어, 대외 이슈에 따른 방향성 부재 속에 수급에 의한 결제수요 유입 등의 영향 반영하며 상승 전환
- 후반 들어, 최근 글로벌 이슈 진정 속에 수급에 따른 좁은 레인지 흐름 이어진 가운데 위안화 강세 흐름 반영 속 국내 외자 유입 등에 따라 1,300원 하향 이탈. 이어 주 후반, 중국 PMI 지표 호조에 따른 위안화 강세 반영하며 1,200원대 진입 후, 이어 발표될 미 PCE지표 경계감에 재차 1,300원대 회복하며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미 2월 PCE 지표가 시장예상을 하회하는 긍정적 감소세를 이어갔음에도 여전히 목표수준과의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 따른 연준의 긴축 기조 시사 등이 환율 하향 추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
- 여기에 산유국 원유 감산 소식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가 제한될 수 있는 측면도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
- 대내적으로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추세와 상기 요인들에 의한 하단 제한 요인으로 결제 수요 니즈가 꺾이지 않는 측면도 환율 하단이 제한 받을 가운데 소폭 상승 추세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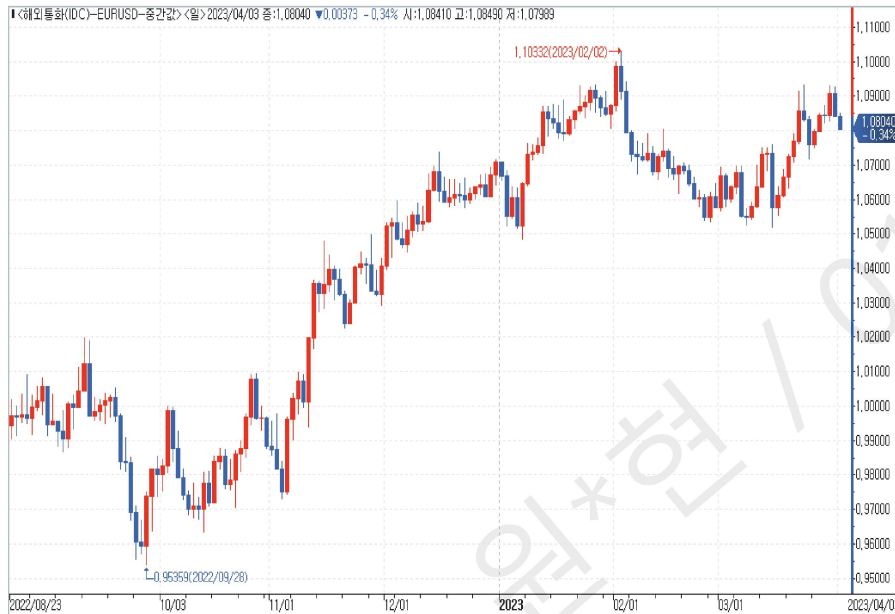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294.5	1303.9	1289.1	1301.9	+7.6

예상거래범위

1,295원 ~ 1,315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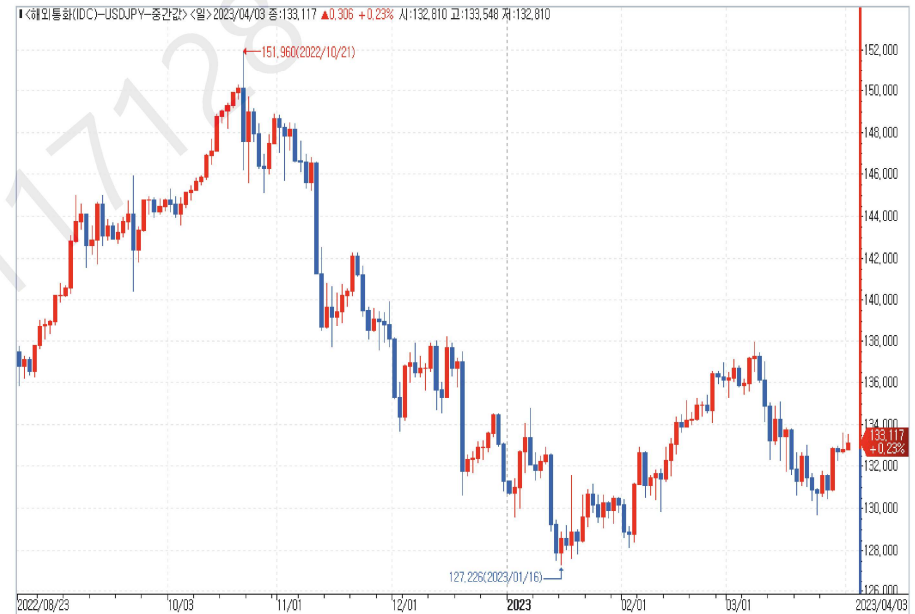
엔·유로화 동향 (3/27~3/31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은행관련 위기가 진정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의 혼조 흐름 속 강세 흐름 회복하며 출발. 이어 도이체 банк CDS 급등 현상도 곧이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위험선호 영향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하며 강세 지속
- 중반 들어, 주요 은행 위험 진정 국면 속에 주요 관심이 재차 연준 통화정책으로 옮겨가는 모습 속에 달러 강세 흐름 반영하며 소폭 약세 전환
- 후반 들어, 미국, 유럽의 은행 부문 유동성 위기 진정 등에 따른 위험 선호 회복과 함께 독일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는 소식 등에 따른 ECB 매파 성향 기대 등이 반영되며 달러 대비 유로 강세 전환. 이어 주 후반, 미 PCE 물가 둔화에도 연준 피벗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인식과 유로존 CPI가 전월대비 1.6%p(속보치 기준) 감소하며 ECB의 매파적 통화정책 행보가 다소 제한될 것란 기대 반영 등으로 약세 전환하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759	1.0927	1.0745	1.0841	+0.0081



엔화 동향

- 주초, 미 은행 위기 진양지였던 SVB의 전격 인수 소식 등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 반영 등으로 약세 출발. 이어 3월 일본 회계연도에 따른 엔화 실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 흐름 전환
- 중반 들어, 엔화 실수요 유입 등에도 주요국 은행권 위기 진정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 반영 등이 엔화 강세 흐름 제한하며 방향성 상층 속 소폭 약세
- 후반 들어, 은행 위기 진정 영향이 위험 선호 심리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행보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시장 인식 등으로 달러 약세 흐름 반영되며 엔화 강세 전환. 이어 주 후반, 미 PCE 물가가 유의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, 연준의 긴축 행보를 멈출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달리는 강세 전환하였고, 여기에 엔화의 실수요 매수세 일 단락 영향 등이 반영되며 약세 흐름 전환하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30.7	133.6	130.4	132.8	+2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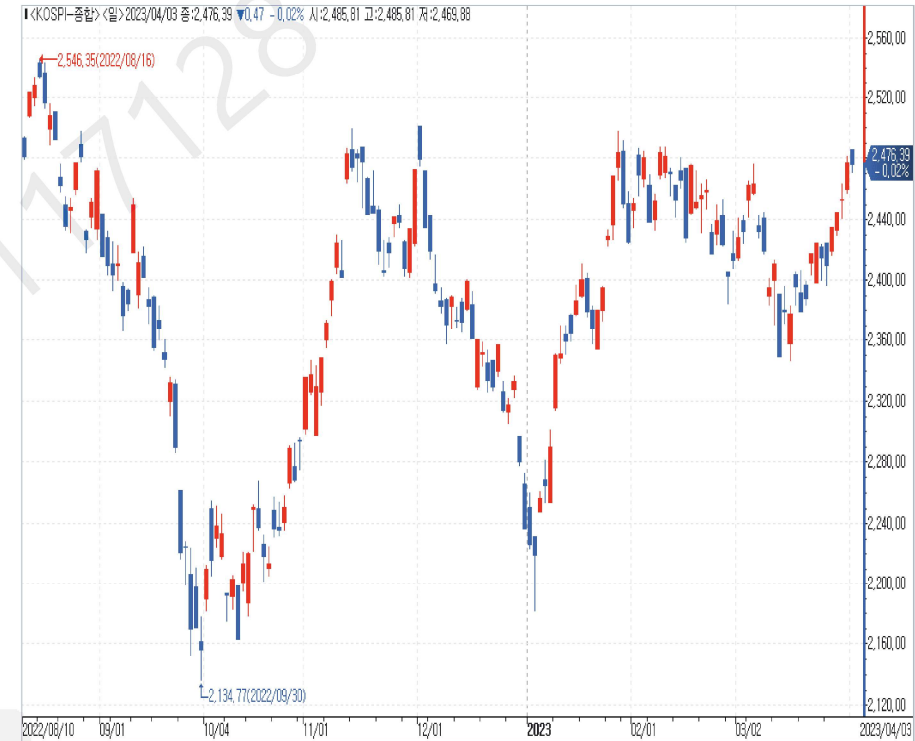
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3/27~3/31)



주간 국고채금리 동향

- 주초, 유럽 도이체뱅크의 건전성 우려 부각에도 제한적 안전 선호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 속에 국내 기관들의 국채 선물 매도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. 이어 미 실리컨밸리 은행 인수 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완화 분위기 반영한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국고채금리도 소폭 상승했으나, 외국인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상승압력 다소 완화 국면
- 중반 들어, 주요국 은행 시스템 우려가 완화되며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 반영되었지만, 특별한 시장 모멘텀 부재 속에 보험권 흐름으로 되돌림 양상
- 후반 들어, 차주의 수급 관련 장기를 입찰을 앞둔 수급 부담 등으로 장기 구간 위주로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, 주 후반, 연준 인사의 추가 금리 인상 언급 발언 등을 소화하며 소폭 상승 흐름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독일 도이체뱅크 위기설에 따른 은행권 불안 여파가 투자심리를 위축 시킨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확대 등으로 하락 출발. 이어 미 정책 당국의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 검토 소식 속에 파산 은행의 신속한 인수 결정 등으로 은행권 우려가 완화하며 상승 전환
- 중반, 미국, 유럽 중심의 은행권 위기 우려가 후퇴한 점이 긍정적이었으나, 반도체 업황 부진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제한된 모습
- 후반 들어, 전일의 반도체 중심 기대심리 개선과 은행권 위기 우려 인식이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, 은행권 유동성 위기 완화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감이 다소 후퇴한 측면은 상단을 제한한 형국. 이어 주 후반, 연준 인사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언급 등에도 그간의 은행권 위기 진정 분위기 속에 외국인파 기관의 매수 확대에 소폭 상승 흐름 마감